

서커스  
거리극  
거리축

2023 GWANGJU FRINGE FESTIVAL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거리예술,  
꿈같은  
일탈

2023.10.20.금 - 22.일  
5·18민주광장, 금남로 및  
예술의 거리 일원



fringefestival.kr

주최 광주광역시  
문의 062-670-7983

주관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03	한밤에 찾아온 손님 Deblozay	하하울립
04	모두의 광장 BARA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
	목림삼 林森	육십사줄
	잇츠굿	봉앤줄
05	와작	에이런크루
	마피코 MAPHIKO	페이크뉴스 프로젝트
	Just 비눗방울.	빛소리 Ent
06	벽 앞에 서서	김영주
	마당-인터랙션	엠비 크루
	비상 Envol	극단 땅과 하늘 사이
07	돌아버리겠네	코드세시
	해체 D-Construction	딥틱무용단
	룰렛(혈투) Roulettes	극단 엘레
08	멀리서 온 방문객을 위한 가이드북	팔꿈치의 활동범위
	공간의 목적	리타이틀
	영감 Afflatus	잉 무용단
09	1/4평의 시간	자리
	다양한 층위 Eclectic Shift	ASK 무용단
	수상한 나라의 엘니뇨	우주마인드프로젝트
10	흔들흔들	231과 서남재
	경사	기역시웃
	통제	포스
11	낭만유랑극단	창작극단 분홍양말
	숨	공연창작집단 사람
	기사들	프로젝트 통
12	돌, 구르다	비주얼씨어터 꽃
	매직아워	제이앤эм 댄스 컴퍼니
	쉼표	아이모멘트
13	일루전 서커스	위대한 공연단
	어메이징 코믹버블쇼	홍스컴퍼니
	버려진 어제	프레젠토 무용단
14	듀오 DUO	아크로 신체무용단
	나도 이민자다!	프로젝트 외WAE
	콘크리트 보이스 1 : 천변우로 415	MOIZ[모이즈]
15	팔순잔치 가는 길	2023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자체 기획·제작

# 한밤에 찾아온 손님

## 하하울립

◎(P)동부경찰서 맞은 편~(이동형) ◎토, 일 19:00



DEBLOZAY  
RARA WOULIB

P

깊은 밤,  
모르는 목적지로  
가는 여행

어둠이 내리고 거리에 그림자가 지나간다. 벽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모퉁이에서 웃음소리도 들린다. 그들이 서서히 나타나 타악기의 리듬과 호흡의 훌리는듯한 멜로디를 가지고 거리를 점령하여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데리고 간다. 이 여행은 도시와 주민들의 기억을 관통하여 진행된다. 신비한 존재들이 우리에게 기억의 문을 열어 준다. 죽은 자들이 돌아와 잊었던 지난 과거를 상기시킨다. 그들은 일상에서 벗어난 꿈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잊었던 장소를 다시 발견하도록 초대하고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에게 빛을 비춘다.

한밤(프랑스)

이동연(구리교)

# H

## 모두의 광장 BARA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나포

▶▶▶  
▶▶▶  
▶▶▶



### 서아프리카의 강렬한 음악과 춤!

'BARA'는 서아프리카 말린케 부족의 말로 광장을 뜻한다. 이 공연은 서아프리카의 강렬한 리듬과 역동적인 춤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로운 에너지와 해방감을 안겨주면서 광장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C

## 목림삼 木林森

육십사출

▶▶▶  
▶▶▶  
▶▶▶



### 디지털 원주민의 삶 속에서 느끼는 생(生)의 감각

만물의 균형을 주관하는 신이 현대사회의 과도한 디지털화를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3명의 사신(使臣)을 내려보낸다. 이제 사신들은 디지털이 지배하는 도심 속에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감각의 세계를 창출해야 한다. 그들은 과연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널판지도 기예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육십사출만의 서커스

# C

## 잇츠굿 봉안줄

▶▶▶  
▶▶▶  
▶▶▶



### 하늘을 걷다.

"당신의 소원을 적어주세요. 제가 하늘 높이 올려보내겠습니다." 소원지로 몸을 두른 그가 높이 6 미터, 길이 24 미터에 이르는 하늘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소원을 발원한다. 우리를 대신해 접신하던 무당굿의 현대판일까?

삶에 대한 위안과 희망의 순간에 우리 마음에 소리가 들린다.  
"It's good(굿)!" 고공 줄타기와 타악 그리고 피아노가 결합한 현대서커스.

# J

## 와작

에이런크루

▶▶▶  
▶▶▶  
▶▶▶



### 쉽게 꺼이고 휘청이는 몸

'와작'은 각목이 부러질 때 나는 소리이다. 각목은 쉽게 휘어지고, 훈들리고, 부러진다. 젊은 춤꾼들은 연약한 각목에 각자 자기의 소외감, 불안, 열망을 대입한다. 하지만 각목들이 모이면 단단하고 강해진다. 그 위에선 걸을 수도 있으며 몸을 의지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 D

## 마피코

페이크뉴스 프로젝트

▶▶▶  
▶▶▶  
▶▶▶



### 가짜뉴스(Fake News)의 정체!

식민지배와 독재, 부패를 경험한 아시아의 세 나라(말레이시아와 필리핀, 한국)가 정치와 경제를 통합한 연대국가 '마피코'를 설립한다. 이어 국가의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관중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후보자들은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논리를 얻고 설득력을 얻는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매커니즘과 초국가주의의 관점이 드러난다.

# H

## 비눗방울 빛소리 Ent

▶▶▶  
▶▶▶  
▶▶▶



### 오색찬란한 비눗방울

비눗방울은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다. 그 속에서는 꿈과 동심, 낭만, 사랑, 아쉬움, 그리움, 안타까움, 놀라움, 행복, 웃음, 무지개, 눈, 추억 등 모든 것을 떠올릴 수 있다. 공연은 사진으로 결코 담을 수 없고, 오로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비눗방울을 보여준다.

# E

## 벽 앞에서 서서

김영주

민비  
서비스



쌓고 무너져도 다시 쌓아가는 삶의 의미

벽돌은 높이 쌓아 올릴수록 위태로워지다가 결국에는 무너진다. 그때마다 좌절과 허탈감, 고뇌가 찾아온다. 하지만 '무너진다'는 것은 쌓아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운명 아닐까? 결국 벽돌을 쌓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 E

## 마당-인터랙션

엠비 크루

민비  
컨템포러리 브레이킹



공간과 몸의 상호작용

공간을 통해 세상을 느낀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땐 단순한 공간이지만 몸과 상호작용을 하면 공간에서 작다 크다 같은 양적 가치가 사라지고 질적 가치가 나타난다. 세상에서 우리는 공간만 마주하는 게 아니라 타인 또한 마주하게 된다. 브레이크 댄스를 기반으로 공간의 질적 의미를 탐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몸으로 표현한다.

# G

## 비상

극단 땅과 하늘 사이

해오(프랑스)  
파이어댄스, 거리극



불의 축복!

불은 가장 오래된 빛이다. 무용수가 둥그런 원을 그리며 춤을 추면서 정원사처럼 불의 씨를 뿐린다. 불이 비처럼 쏟아지고, 안개처럼 우리 주위를 감싸는가 하면, 허공을 날고, 세례를 퍼붓듯 쏟아져 내리기도 한다. 어쩌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빛과 평화 그리고 기쁨의 불씨를 뿐리고 있다고 어두운 밤을 걷어내고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의 푸른 지구에 희망의 새날이 밝아옴을 알리고 있다고. 이 원초적인 움직임의 춤과 불의 세례에 기타의 플리.Magenta와 음악이 함께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동그란 구조물의 원심력과 구심력에 호기심을 두고 창작된 작품이다. 지구는 돈다. 그 안의 우리도 돈다. 첫바퀴라고 했던가?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돌아간다. 내가 돌리고 있는 건가, 내가 돌아가는 건가? 멈추고 싶어도 현실은 계속해서 돌아간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왕 도는 세상 돌고, 구르고, 즐기는 수밖에!



자유를 향한 몸짓, 힙합!

나는 이제 닭장에 맞지 않는다. 울타리는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속해있는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은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다. 나는 자유와 해방을 원한다! 아직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나는 일단 나 외의 다른 모든 것들, 모든 바깥세상과 전쟁을 벌이고자 한다. 의지는 강하지만 저항은 고통스럽다. 자유를 부르짖는 거친 몸짓이 힙합에서 그 힘을 얻었다.



노인과 소년의 대결(Battle)!

노인이 산책을 나온다. 그는 잘 걷지 못하는 다리를 이끌고 거리에 나와 좋아하는 의자에 앉는다. 그는 오늘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개구쟁이 소년 하나가 그의 공간에 침입해 그에게 뭔가 결단을 하도록 자극한다. 그는 이 게임을 받아들일 것인가?

# G

## 돌아버리겠네

코드세시

국내  
컨템포러리서비스

I

## 멀리서 온 방문객을 위한 가이드북 팔꿈치의 활동범위

관내  
판교  
팝업북 전시, 그림자극

### 오래된 것은 모두 사라져야 하나?

도시의 한 공사 현장, 이곳에 도착한 방문객들을 위해 팝업북과 편지가 놓여 있다. 해가 지고 종이 아이가 나타나 팝업북을 펼쳐가며 사라진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관객이 직접 팝업북을 읽어 볼 수 있는 전시와 다양한 팝업 형식을 활용한 그림자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60분)가 끝난 후 정비를 하고(15분), 공연이 이루어진다. 공연 후 다시 30분 정도 전시 시간을 갖는다.

A

## 공간의 목적 리타이틀

관내  
거리쪽

### 너무나 익숙해 놓치고 지나간 공간의 새로운 발견

매일 다니는 출근길, 공원, 골목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종종 스쳐 지나가기 일쑤다. 앞만 보고 가기 때문이다. 천천히 둘러볼 여유가 없어서도 그럴 수 있다. 비쁜 보행자들을 붙잡고 그 공간을 놀이터 삼아 놀이본다. 그러자 아무 의미없던 것에 의미가 생기고 생기를 잃은 공간에 활기가 생겨난다. 젊은이들의 거리춤 비보잉은 여기에 가장 적합한 놀이일지 모른다.

G

## 영감 임무용단

해외(중국)  
대지예술, 설치, 퍼포먼스

### 흙 위에서 던지는 몸의 질문

이 작품은 대지미술과 일인무로 구성되어 있다. 대지미술은 수많은 무용수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작품은 지역의 주민들더러 지역의 소재로 무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서 추는 춤을 구경하고, 각자 자기들 방식으로 예술가와 의견을 교환할 것을 요청한다. 믿음과 용기 그리고 강인함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K  
1/4평의 시간  
자리

④(K) 금남공원

④토, 일 17:30

공연 40', 사전 예약 공연



### 일이란 무엇인가?

작업자(공연자)가 나무 숟가락을 깎는다. 옆에는 그동안 만든 나무 숟가락들이 놓여 있고, 우리 이웃들의 '일에 대한 인터뷰'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다. 해 질 무렵 작업자는 작업대에서 일어나 둘러앉은 관객들과 마주 앉아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그리고는 작업복을 벗고 육조 안에 들어가듯 관 안에 들어가 내일을 위한 기도와 함께 죽음 같은 휴식에 들어가면서 하루를 마감한다. 설치관람(및 관객참여), 작업자 독백, 일에 대한 대화, 하루의 마감 순으로 진행된다.

L  
다양한 총위  
ASK 무용단

④(L) 518기록관

④토, 일 14:00, 18:00

### 변화에 대한 은유의 몸짓

이 작품은 전통무용의 요소들과 결합하여 변화에 대한 은유이다. 현대인의 도전과제로서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무용기법들 사이의 차이점을 탐구한다.

J  
수상한 나라의 엘니뇨  
우주마인드프로젝트

### 불신과 자책감으로 개인 내면에 휘몰아치는 혼란과 혼돈의 시(時)

기후위기의 시대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엉켜버린 생각, 불확실한 사회구조와 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이어진 자기불신과 자기기만, 아무 믿음 없이 맴돌기만 하는 의혹의 악순환과 그로 인해 불안감과 자책감에 휩싸인 채 살아가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을 들여다보고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에 질문을 던진다.

국내  
콘텐츠  
기획단



### 흔들리는 순간,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흔들리는 원통과 고정되어있는 사각 프레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두 사람. 우리의 삶 속에는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나로 인해 흔들리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 흔들려지기도 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안정을 찾아 나선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이 흔들림 속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콘텐츠  
기획단



### 경사에 이르는 경사진 길

오늘은 경사스러운 결혼식 날이다. 신랑과 신부는 각자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살아왔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오늘날 청년들의 아무진 꿈이 보인다. 하지만 경사에 이르는 길은 경사지 않고 평탄할까? 하지 않다. 꿈보다 더 비현실적인 현실 속에서 이들은 과연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을까?

국내  
콘텐츠  
기획단



### 두 사람에게 연결된 줄, 그리고 공중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충돌.

우리는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없다. 그 관계가 서로 묶고 있는 줄이라면 어떻게 될까? 당기면 멀어지려 하고, 놓으면 다가온다. 세게 당기면 통증이 찾아오고, 느슨하게 풀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어 방향한다. 원활한 관계를 위한 적절한 통제란 무엇인가? 관계 형성에서 생겨나는 작용을 줄다리기로 표현한 작품이다.



### 낭만을 찾아드립니다.

낭만과 꿈이 흐릿해져가는 이 시대, 낭만유랑극단이 다시 되찾아드립니다! 낭만적인 단장 알렉산더와 꿈을 가진 배우(줄인형)가 낭만과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을 전한다. 아름다운 아코디언 라이브 연주와 코미디가 어우러진 섬세한 줄인형극.

국내  
오픈극



### '죽음'을 바라보다, '삶'을 노래하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태어나고 죽는다. 하지만 화려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는 자연의 본질을 얼마나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도시를 건설한 크레인에 30미터 높이를 연결하고 삶의 줄을 하나씩 하나씩 오르는 인물은 관객에게 그의 숨소리를 듣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직접 놓인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과 그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국내  
콘텐츠  
기획단



### 쓸쓸하면서도 쾌활한 물체극!

잠들기 전 다음 날 먹을 음식을 고르고 스마트폰을 터치한다. 당신이 잠든 사이 음식이 집 앞까지 배달되는 그야말로 유통혁명의 시대다. 당신이 원하는 일상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배달기사들이 광장에 들어선다. 신속한 배달을 위해 속도전쟁을 벌이는 그들은 마치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풍차와 맞서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국내  
연극, 서비스

**M**

**돌, 구르다**  
비주얼씨어터 꽃

비주  
글리피



몸이 거리의 공간과 뭉친다 추는 환상과 환멸의 춤!  
꽃길 위에서 넘어진 사내.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순간에 추락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 작품은 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숙자의 이야기이고,  
관객들이 노숙자를 따라다니는 공연이고, 노숙자와 함께 공연에  
참여하여 그의 일상을 공유하고 그를 탄압하는 사회와 공권력에 함께  
맞서 싸우는 드라마이다.

**N**

**매직아워**  
제이앤엠 댄스 컴퍼니

비주  
액세무아



너와 나의 꿈같은 시간

나의 'Magic hour'는 마무리되었다. 당신이 내 삶에 존재했던 꿈같은 그  
시간이 내겐 Magic hour이었다. 내게 가장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아주  
짧았던 시간. 함께 'Magic hour'을 겪은 너와 나가 이제 함께 그 시간을  
반추한다. 여성 특유의 움직임과 에너지를 통해 여성성의 이미지를 구현한  
공연이다.

**D 금 M 토**

**쉼표**  
아이모멘트

비주  
글리피



쉴 수가 없다!

쉬고자 하나 좀처럼 쉬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 연료가 떨어지면 곧바로  
주입하고 떠나는 자동차처럼 최소한의 연료를 보충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끊임없이 일을 한다. 쉼 없이 이동하는 우유박스와  
자동차를 이용한 서비스 기여와 움직임이 꿈과 허무 사이를 오가는  
이야기를 전한다.

**illusion circus**  
great performance group

◎(N) 전일빌딩 앞  
◎토 14:00, 15:30



원맨쇼의 끝판왕

미술사가 진행하는 작은 서커스이다. 따라서 신기한 마술과 아슬아슬한  
서커스가 벌어지고, 여기에 마임과 입담이 어우러져 희극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N**

**일루전 서커스**  
위대한 공연단

비주  
미술, 서커스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풍선을 이용해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고, 비눗방울로 화려한 연출을  
선보인다. 남녀노소 모두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공연이다.

**N**

**어메이징 코믹버블쇼**  
홍스컴퍼니

비주  
디원예출

시민참여 퍼포먼스

◎(N) 전일빌딩 앞  
◎토 17:00

멈출 수 있을까?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옷은 330억벌이라고 한다. 유행에 따른  
반복적인 소비로 인해 엄청난 옷이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매년 발생하는 쓰레기 무게는 9,200만톤이며, 태평양에는 대한민국의  
1.5배의 쓰레기섬이 떠다닌다. 이 공연은 전 지구적 이슈인 환경문제를  
무용과 결합한 퍼포먼스를 통해 제기한다.

**N**

**버려진 어제**  
프레젠테 무용단

비주

D 토 N 일

듀오

아크로 신체무용단

해외(대만)  
아크로페스티벌



#### 몸으로 표현하는 감정

이 작품은 기예(acrobatic)에 무용을 가미하여 갖가지 기교적이고 섬세한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명의 공연자는 높은 난이도의 기예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해낸다. 둘 사이의 유통치는 관계는 강하고 우아한 신체뿐 아니라 때로는 부드럽고 연약한 감정으로도 표현된다. 서로 들어올리고 서로 끌어내리면서 그들은 이것이 '몸'이라고 말한다.

O

나도 이민자다!

프로젝트 외WAE

관련  
이동형무용극, 정소특정장면연연



#### 우리는 모두 이민자다!

현대는 정체성보다는 다양성의 시대이다.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있는 낯선 사람. 이 낯섦을 불편함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적과 문화에서 온 이민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뜻밖에도 지리적 이동뿐 아니라 한 곳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끝없이 방황하는, 정신적 이민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

Q

콘크리트보이스1:

천변우로 415

MOIZ[모이즈]

관련  
이동형연연오디오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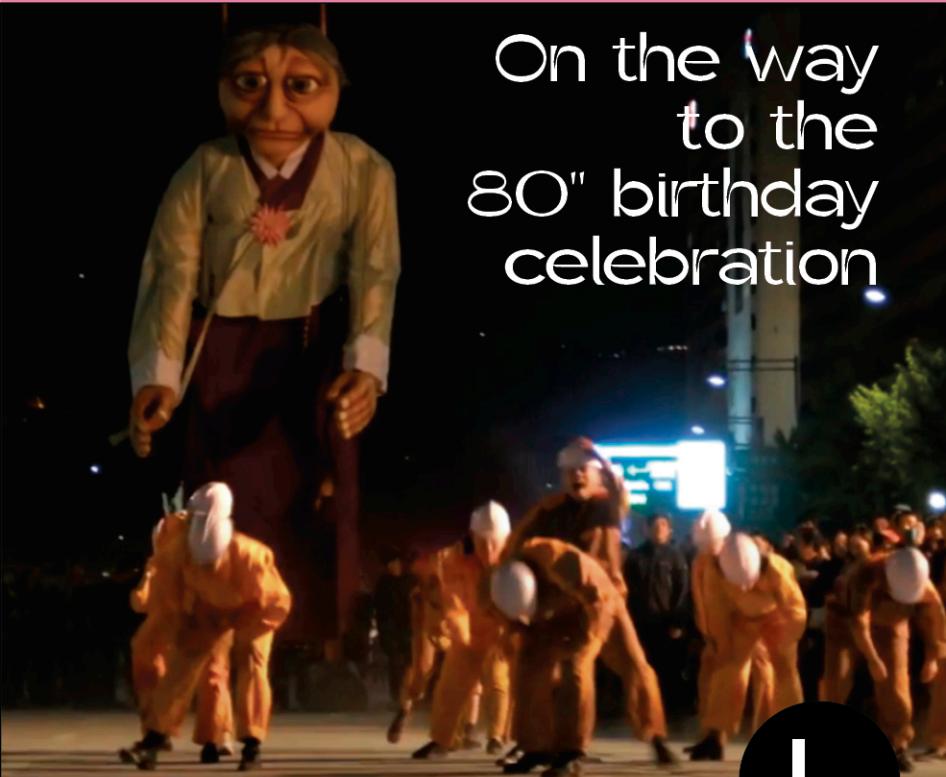
관객들은 '가치탐험대'가 되어 '천변우로 415'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치를 찾아나간다. 길을 걷는 60분 동안, 관객은 천변우로 415의 과거가 될 수도, 현재일 수도, 미래가 될 수 있는 건물들을 만난다. 마침내 도달한 천변우로 415, 옛 광주적십자병원에서 관객은 나가 어찌게 살만 좋겠어요?라는 질문에 답한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이미지로 만든 사진을 이용해, '기장 어울리는 가치'를 투표하며 공연이 마무리된다.

후원: 5·18 기념재단

팔순잔치 가는길

2023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자체 기획·제작

④(이동형)(L) 5·18 기록관 ⑤토, 일 21:00



L

팔순잔치에  
부르는  
어머니의 노래!

관련  
이동형 가리극

팔순잔치를 벌이려 간다. 지난 세월을 돌아켜본다. 해방이 찾아왔고, 동족 간 전쟁이 벌어졌으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힘든 일을 해야 했다. 마침내 산업화에 성공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과다경쟁으로 인해 희생자가 생겨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할머니의 큰아들도 오래전에 가정을 떠나 소식이 없다. 할머니는 그 아들을 팔순잔치에서 볼 수 있을까?

## 축제 일정표

10.20. 금

★ 사전예약제

장소	시간	작품명	장르	소요	장소
5·18 민주광장	15:00	경사	서커스극	35분	B. 시계탑 앞
	15:30	잇츠굿	컨템포러리 서커스	40분	C. 전남도청 별관 앞
	16:30	공간의 목적	거리춤	25분	A. 민주의 종
	17:20	목립삼	서커스	40분	C. 전남도청 별관 앞
	18:00	통제	서커스	25분	B. 시계탑 앞
	18:30	쉼표	거리극	35분	D. 전남도청 본관 앞
	19:00	돌아버리겠네	컨템포러리 서커스	25분	G. 분수대 앞
	20:00	비상 Envol	파이어 댄스-거리극	45분	G. 분수대 앞
예술의 거리 일원	15:00	모두의 광장 BARA	다원예술	30분	H.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앞 마당(이동형)
	15:30	수상한 나라의 엘니뇨	토카티브씨어터 거리극	40분	J. 미로센터
	15:30	Just 비눗방울.	버블 퍼포먼스	30분	H.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앞 마당
	16:30	룰렛(roulette) Roulettes	마리오네트 인형극	17분	H.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앞 마당
	17:00	Just 비눗방울.	버블 퍼포먼스	30분	H.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앞 마당
	17:00	와작	브레이킹(비보이) 거리극	40분	J. 미로센터
	18:00	룰렛(roulette) Roulettes	인형극	17분	H.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앞
	18:30	멀리서 온 방문객을 위한 가이드북	팝업북 전시·그림자극 (전시 17:30)	40분	I. 광주학생예술누리터 맞은편 주차장

10.21. 토

장소	시간	작품명	장르	소요	장소
5·18 민주광장	14:00	듀오 DUO	아크로바틱	30분	D. 전남도청 본관 앞
	14:30	벽 앞에 서서	서커스	25분	E. 전남도청 회의실 앞
	15:00	영감 Affatus	디자예술설치-퍼포먼스	45분	G. 분수대 앞
	16:00	마피코 MAPHICO	거리극, 포럼연극	70분	D. 전남도청 본관 앞
	16:30	공간의 목적	거리춤	25분	A. 민주의 종
	17:20	목립삼	서커스	40분	C. 전남도청 별관 앞
	18:00	통제	서커스	25분	B. 시계탑 앞
	18:30	마당-인터랙션	컨템포러리 브레이킹	30분	E. 전남도청 회의실 앞
	19:00	해체 D-Construction	힙합댄스거리춤	30분	F. 상무관 앞
	20:00	비상 Envol	파이어 댄스-거리극	45분	G. 분수대 앞
예술의 거리 일원	13:00	모두의 광장 BARA	다원예술	30분	H.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앞 마당(이동형)
	15:00	룰렛(roulette) Roulettes	마리오네트인형극	17분	H.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앞 마당
	15:30	수상한 나라의 엘니뇨	토카티브씨어터거리극	40분	J. 미로센터
	16:30	룰렛(roulette) Roulettes	마리오네트인형극	17분	H.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앞 마당
	17:00	와작	브레이킹(비보이)거리극	40분	J. 미로센터
	18:00	룰렛(roulette) Roulettes	마리오네트인형극	17분	H.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앞 마당
	18:30	멀리서 온 방문객을 위한 가이드북	팝업북 전시·그림자극 (전시 17:30)	40분	I. 광주학생예술누리터 맞은편 주차장

장소	시간	작품명	장르	소요	장소
금남로 거리 일원	14:00	다양한 층위 Eclectic Shift	컨템포러리 무용	13분	L. 5·18 기록관
	14:00	일루전 서비스	미술-서비스	35분	N. 전일빌딩 앞
	14:30	기사들	연극-서비스	30분	M. 우리은행 앞
	15:00	낭만유랑극단	인형극	40분	L. 5·18 기록관
	15:00	매직아워	현대무용	20분	N. 전일빌딩 앞
	15:30	일루전 서비스	미술-서비스	35분	N. 전일빌딩 앞
	16:00	돌, 구르다	거리극	50분	M. 우리은행 앞
	17:00	숨	서커스	30분	L. 5·18 기록관
	17:00	버려진 어제	시민참여 퍼포먼스	25분	N. 전일빌딩 앞
아시아음식 문화의거리	17:30	쉼표	거리극	35분	M. 우리은행 앞
	17:30	1/4평의 시간 ★	전시-관객참여 퍼포먼스	40분	K. 금남공원
	18:00	다양한 층위 Eclectic Shift	컨템포러리 무용	13분	L. 5·18 기록관
	18:30	흔들흔들	컨템포러리 서커스	25분	N. 전일빌딩 앞
	21:00	팔순 잔치 가는길	이동형 거리극	50분	L. 5·18 기록관(이동형)
	19:00	나도 이민자다! ★	이동형 무용극 ·장소특정형 공연	50분	O.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이동형)
	19:00	한밤에 찾아온 손님 DEBLOZAY	이동형 거리극	90분	P. 동부경찰서 맞은편~ (이동형)
	13:00	콘크리트 보이스 1: 천변우로 415 ★	장소특정형-이동형 ·오디오씨어터	70분	Q. 전일마루~(이동형)
	16:00				

10.22. 일

장소	시간	작품명	장르	소요	장소
5·18 민주광장	14:00	해체 D-Construction	힙합댄스 거리춤	30분	F. 상무관 앞
	14:40	영감 Affatus	대지예술, 설치, 퍼포먼스	45분	G. 분수대 앞
	15:30	벽 앞에 서서	서커스	25분	E. 전남도청 회의실 앞
	16:00	마피코 MAPHICO	거리극, 포럼연극	70분	D. 전남도청 본관 앞
	17:20	잇츠굿	컨템포러리 서커스	40분	C. 전남도청 별관 앞
	18:00	돌아버리겠네	컨템포러리 서커스	25분	G. 분수대 앞
	18:30	경사	서커스극	35분	B. 시계탑 앞
	18:30	마당-인터랙션	컨템포러리 브레이킹	30분	E. 전남도청 회의실 앞
	19:00	해체 D-Construction	힙합댄스, 거리춤	30분	F. 상무관 앞
금남로 거리 일원	14:00	다양한 층위 Eclectic Shift	컨템포러리 무용	13분	L. 5·18 기록관
	14:00	어메이징 코믹버블쇼	다원예술	30분	N. 전일빌딩 앞
	14:30	기사들	연극-서비스	30분	M. 우리은행 앞
	15:00	낭만유랑극단	인형극	40분	L. 5·18 기록관
	15:00	매직아워	현대무용	20분	N. 전일빌딩 앞
	16:00	어메이징 코믹버블쇼	다원예술	30분	N. 전일빌딩 앞
	16:00	돌, 구르다	거리극	50분	M. 우리은행 앞
	17:00	숨	서커스	30분	L. 5·18 기록관
	17:30	듀오 DUO	아크로바틱	30분	N. 전일빌딩 앞
아시아음식 문화의거리	17:30	1/4평의 시간 ★	전시-관객참여 퍼포먼스	40분	K. 금남공원
	18:00	다양한 층위 Eclectic Shift	컨템포러리 무용	13분	L. 5·18 기록관
	18:30	흔들흔들	컨템포러리 서커스	25분	N. 전일빌딩 앞
	21:00	팔순잔치 가는길	이동형 거리극	50분	L. 5·18 기록관
	19:00	나도 이민자다! ★	이동형 무용극 ·장소특정형 공연	50분	O.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이동형)
	19:00	한밤에 찾아온 손님 DEBLOZAY	이동형 거리극	90분	P. 동부경찰서 맞은편~ (이동형)
	13:00	콘크리트 보이스 1: 천변우로 415 ★	장소특정형-이동형 ·오디오씨어터	70분	Q. 전일마루~(이동형)
	16:00				

# 거리예술, 꿈 같은 일탈

